

美, 다시 초저금리 시대로 가나

버냉키 FRB 의장 “통화정책 재고”...금리 인하 시사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7일 현재의 금리정책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혀 정책금리의 인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버냉키 의장은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의 경기부진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 전미실물경제협회(NABE)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이 더 나빠졌고 성장세의 하강 리스크가 커졌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FRB가 지금의 통화정책적 입장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의 금융위기가 경기상황을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더욱 연장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버냉키 의장은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하지만 원유와 여타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버냉키 의장의 이러한 발언은 이날 28~29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조정 회의 때, 혹은 그 보다 앞서 정책금리를 인하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로 해석된다.

FRB까지 버냉키 의장을 포함해 FRB의 주요 인사들은 정책금리 인하가 경제활동을 호전시키는데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지만 이날 버냉키 의장의 발언은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과 FRB가 글로벌 금융위기 타격을 위해 정책금리 인하에 보조를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버냉키 의장이 미국의 성장률 전

망이 나빠졌지만 인플레이 우려는 완화됐음을 지적한 점은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한층 더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버냉키 의장은 현재 미국과 여타 국가들의 금융시스템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위기 타격을 위해 취해지고 있는 조치들로 인해 결국에는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확실하다고 말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와 투기적 거품을 조장한 금융회사들이 부실에 시비했던 현재의 문제가 금융시스템에 엄청난 긴장을 주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활동이 내년까지 위축되고 시장혼란이 경기둔화를 오래 지속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태국의 반정부 시위대와 경찰이 7일 의사당에서 두 차례 충돌, 시위 참가자 2명이 사망하고 381명이 부상했다. 경찰의 강제 해산으로 부상을 입은 반정부 시위대가 차량위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EU, 예금 보장 5만 유로로 상향

유럽연합(EU)은 금융위기 속에 예금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고자 27개 회원국에 적용되는 예금 지급보장 한도를 종전의 2만 유로에서 5만 유로로 높이기로 7일 합의했다.

이로써 EU 27개 회원국은 5만 유로를 최저선으로 해 각각 사정에 따라 예금 지급보장 한도를 운용하게 된다.

EU 회원국 경제·재무장관들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회의를 갖고 이처럼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프랑스를 비롯해 많은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예금 지급보장 한도의 최저선을 10만 유로로 끌어올릴 것을 주장, 금융위기 대처에 여전히 회원국 사이에 이견이 크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프랑스는 전면적인 무제한 예금 지

급보장보다는 보장 한도를 큰 쪽으로 끌어올려 재정에 막대한 부담 없이 실질적으로 예금자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고자 10만유로 ‘카드’를 꺼내 들었었다.

그러나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프랑스의 제안은 반대에 부딪혀 채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미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제한 없는 예금자 보호 조치가 발표된 마당에 5만 유로로 보장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라가르드 재무장관은 또 27개 회원국 정부는 은행시스템의 견고함과 안정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노벨 화학상 시모무라·살피·시엔 공동수상

미국의 마틴 살피(61), 로저 시엔(56), 그리고 일본의 시모무라 오사무(下村修·80)가 올해 노벨 화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노벨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산하 노벨위원회는 8일 수상자들이 녹색 형광 단백질의 발견과 개발이라는 업적을 세웠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녹색 형광단백질(GFP)의 발견 덕에 신경세포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혹은 암세포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같이 이전에는 관찰할 수 없었던 생체 내 현상을 살펴볼 수 있게 됐다고 노벨위원회는 설명했다.

시모무라 박사는 해파리의 일종인 ‘에퀴리아 비토리아’(Aequorea Victoria)로부터 GFP를 처음 추출해 냈으며, GFP가 자외선 아래에서 녹색 빛을 낸다는 점 또한 처음 발견했다.

살피 박사는 GFP가 표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고, 시엔 박사는 GFP가 어떻게 해서 빛을 내는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연합뉴스



〈시모무라〉



〈마틴 살피〉



〈로저 시엔〉

태국 최악 유혈사태

경찰·시위대 충돌 수백명 사상...숨차이 총리, 사임 요구 일축

태국 반정부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2명이 사망하고 380여명이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정국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숨차이 웅사왓 총리는 시위대의 총리직 사임과 의회 해산 요구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숨차이 총리는 7일 반정부 단체인 국민민주주의연대(PAD)가 이끄는 시위대가 의사당을 봉쇄하자 담을 넘어 태국군 최고사령부로 몸을 피한 뒤 “내가 총리직에 머무는 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PAD와 학계의 총리직 사임과 의회 해산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이어 치안의 책무는 경찰에

있으며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도 배제했다. 현지신문인 방콕포스트는 익명의 군 소식통을 인용, 아누퐁 파오친다 육참총장은 이날 열린 긴급 각료회의에서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시위대 강제해산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하자 이날 밤 육군 6개 중대, 해·공군 각각 2개 중대 등 모두 10개 중대가 방콕 시내에 배치돼 경찰의 치안업무 지원에 나섰으며 방콕 외곽에는 30개 중대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위대 수천명은 7일 밤 접거 농성 중인 정부청사에서 피차이 거리에 있는 의사당까지 거리행진을 벌인 뒤 트럭 등을 동원해 주변 도로 봉쇄를 시도했다. 시위대의 의사당 봉쇄는 PAD 핵심 지도자인 잠롬 스리무앙의 체포에 항의하고 숨차이 총리가 출석한 가운데 의회에서 열릴 예정인 신정부 정책설명회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찰이 최루탄을 쏘아 강제해산하는 과정에서 2명이 숨지고 3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 반정부 시위 이후 최악의 유혈사태를 빚었다. /연합뉴스

“날선 공방을 벌였지만 결정타는 없었다.” 미국 공화당의 존 매케인, 민주당의 바라크 오바마 대통령 후보는 7일 벌어진 2차 TV 토론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뜨거운 공방을 벌였지만 막판 관세에 큰 영향을 줄 ‘KO펀치’는 서로 주고받지 못했다.

오바마와 매케인 진영은 이날 TV토론에서 비방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노골적인 인신공격은 없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후보에 다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난

美대선 오바마-매케인 2차 TV 토론

결정타 없이 뜨거운 공방만

매케인 후보는 1차 토론에 비해 더욱 공격적인 자세로 토론에 임했으며, 오바마는 매케인의 공격에 논리적으로 대응하면서 역공에 나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는 평가다.

AP통신은 두 후보가 이라크전을 비롯한 중요한 이슈에서 날카로운

대결을 벌였으나 “2차 TV토론 전까지 있었던 서로 간의 인신공격 심함에는 피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두 후보는 이라크전과 관련해 새로운 안을 내놓지 못하고 기존 정책의 미흡을 지적하고 평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인터넷판에서

“토론 전에는 대격돌이 예상됐었다”면서 그러나 두 후보는 양 진영에서 이번 주 선거광고를 통해 서로를 아주 거칠게 비난했던 것과는 달리 가혹하게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두 후보가 ‘다소 점잖은’ 토론을 벌인 것은 이날 2차 TV토론의 형식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토론 직후 CNN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오바마 후보가 54% 대 30%로 매케인 후보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北 서해로 미사일 발사”

NHK “日정부 정보 입수”

북한이 서해상에서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는 정보가 관계국으로부터 일본 정부에 접수됐다고 NHK가 7일 보도했다.

NHK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이같이 전하고 “일본 정부는 미사일 발사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발사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사정기 짧은 것이 아닌가 보고 미사일의 종류 등의 정보 수집에 나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네팔 여객기 추락 18명 사망

19명을 태운 소형 여객기가 9일 오전 네팔 텐징-힐러리 공항에 착륙하던 중 추락해 18명이 사망하고 조종사만 생존했다.

사고 여객기가 소속된 에티항공 관계자는 “카트만두에서 출발해 텐징-힐러리 공항에 착륙하던 쌍발기 ‘트윈 오토’가 활주로 담장을 들이받아 승객 16명과 승무원 2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안개가 많이 끼어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사고 여객기는 추락 후 화염에 휩싸였으며 사망한 탑승객 16명 가운데 12명은 독일, 2명은 호주, 나머지 2명은 네팔 국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한 생존자인 네팔인 조종사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해발 2천800m 지점에 위치한 텐징-힐러리 공항은 에베레스트 지역의 유일한 공항으로, 에베레스트를 찾는 산악인들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공매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무사 권숙원
공인중개사 김갑순

(주)옥션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경매 입찰장 앞)

친집상담
☎062)222-8446
H.010-3666-8446

▶근린시설 (근린주택/상가)

지역	소재지	대/전(㎡)	감평가	최저가	비고
동구	황동동	588/1989	21억1000원	4998000원	12년부동산보통
서구	회정동	1128/2185	19억7800원	11981000원	19년부동산보통
회정동	144/314	2938000원	19983000원	3883200원	19년부동산보통
회정동	408/177	8988000원	19983000원	3883200원	19년부동산보통
신안동	201/285	2918000원	973000원	19983000원	19년부동산보통
유동	316/479	2938000원	19983000원	12년부동산보통	
유동	91/165	2922000원	19983000원	19983000원	19년부동산보통
유동	456/738	8928000원	4934000원	19983000원	19년부동산보통
유동	484/1324	12970000원	8938000원	19983000원	19년부동산보통
유동	430/818	7928000원	8938000원	19983000원	19년부동산보통
동구	회정동	197/647	1497000원	8927000원	19년부동산보통
회정동	1968/555	2928000원	19983000원	19983000원	19년부동산보통
회정동	1287/851	6928000원	2938000원	19983000원	19년부동산보통

▶주목

지역	소재지	대/전(㎡)	감평가	최저가	비고
회정동	회정동	1228/162	488000원	280000원	19년부동산보통
회정동	회정동	535/165	1983000원	19983000원	19년부동산보통
회정동	회정동	888/112	488000원	280000원	19년부동산보통
회정동	회정동	382/287	488000원	280000원	19년부동산보통
회정동	회정동	388/108	1997000원	19983000원	19년부동산보통
회정동	회정동	182/73	830000원	580000원	19년부동산보통
회정동	회정동	154/158	1998000원	782000원	19년부동산보통
회정동	회정동	142/166	1922800원	880000원	19년부동산보통
회정동	회정동	180/141	930000원	420000원	19년부동산보통
회정동	회정동	158/178	1998000원	830000원	19년부동산보통
회정동	회정동	354/181	1998000원	830000원	19년부동산보통
회정동	회정동	143/187	1984000원	840000원	19년부동산보통
회정동	회정동	191/181	888000원	487000원	19년부동산보통

▶아파트

지역	소재지	대/전(㎡)	감평가	최저가	비고
동구	회정동	3552/4658	1298000원	780000원	19년부동산보통
동구	회정동	1980/594	6985000원	19983000원	19년부동산보통
동구	회정동	1144/838	7940000원	5948000원	19년부동산보통
동구	회정동	9332/2238	11910000원	19983000원	19년부동산보통
동구	회정동	2127/1332	11910000원	19983000원	19년부동산보통
동구	회정동	2307/1464	5948000원	19983000원	19년부동산보통
동구	회정동	8157/1654	7940000원	8928000원	19년부동산보통

▶다세대(빌라)

지역	소재지	대/전(㎡)	감평가	최저가	비고
서구	회정동	391/158	1290000원	19983000원	19년부동산보통
서구	회정동	391/158	1290000원	19983000원	19년부동산보통
서구	회정동	391/158	1290000원	19983000원	19년부동산보통
서구	회정동	391/158	1290000원	19983000원	19년부동산보통
서구	회정동	391/158	1290000원	19983000원	19년부동산보통
서구	회정동	391/158	1290000원	19983000원	19년부동산보통
서구	회정동	391/158	1290000원	19983000원	19년부동산보통
서구	회정동	391/158	1290000원	19983000원	19년부동산보통
서구	회정동	391/158	1290000원	19983000원	19년부동산보통
서구	회정동	391/158	1290000원	19983000원	19년부동산보통

▶농가주택

지역	소재지	대/전(㎡)	감평가	최저가	비고
회정동	회정동	1149/185	440000원	128000원	19년부동산보통
회정동	회정동	1451/736	940000원	830000원	19년부동산보통
회정동	회정동	1679/794	600000원	580000원	19년부동산보통
회정동	회정동	5031/1738	2970000원	870000원	19년부동산보통

▶기타

지역	소재지	대/전(㎡)	감평가	최저가	비고
회정동	회정동	888/354	19983000원	954000원	19년부동산보통
회정동	회정동	5134/435	19983000원	19983000원	19년부동산보통
회정동	회정동	428/48	242000원	155000원	19년부동산보통

곡성점
1883평
평당 53,000원
농장적합
차량진입가능

지산동 대지
대2형
평당 170만원
원불부지리함
조선대민근

화순남면주책
대124/245
매매가 5,500만원
내부물리도매업

전북 남원시
대2618/21579
감평가11억4000만
최저가15억8000만
지리산호텔

평안북도
대208/2491
감평가14억2800만
최저가2억8900만
원불

충청남도
대187/21647
감평가14억7000만
최저가18억2700만
상가사무실

해진수산 '자매업체'
광어전문점

등대바다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
682-9688

등대바다</